

# 한중 성장소설 연구

朴正元(韩国外国语大学 中文系)

## [논문개요]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8,90년대는 집단주의 정서가 서서히 소멸하고 한국의 국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 운동, 중국의 문화대혁명 종결과 개혁개방이라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학 자장권에서의 문학의 변화 발전은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제외하고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또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문학의 존재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학의 문학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가들의 선택은 과도한 대중논리와 상업화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문학, 8,90년대, 한국문학, 중국문학,

## 1. 들어가며

“문학은 역설적으로 중심화하려는 모든 중심을 부정하는 중심이요, 모든 진리를 해체시키는 진리가 된다.(特里·伊格尔顿 (Terry Eagleton), <비평의 기능>)는 말처럼 문학은 모든 주변적인 간섭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어야만이 문학 자체의 영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대 한중의 변천사를 보면서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건국과 문혁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이어지는 당대사와 한국의 4·19, 5·16, 유신체제 그리고 80년 5월의 광주항쟁의 당대사는 그 변천궤도에 있어서 문학성의 상실과 개인의 소외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문학과 한국의 민중문학과 노동문학은 계급의식과 이데올로기의 사슬에 묶인 중국의 체제동일성(옹호)과 한국의 체제 비동일성(저항)이라는 저항의 관점만 제거된다면 역시 문학의 문학성 상실이라는 분모는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그리고 중국의 80년대 초반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90년도의 다문화적인 사회현상의 출현과 한국의 '80년대 문학의 한 급진적인 경향에 대한 환멸 속에서, 현실로부터 퇴각, 일상 또는 내면으로' 잠입해 들어가는 현상의 출현은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한중문학의 방향성에 무언의 암시를 주기에 충분한 시사점이 있으며, 본 논문 또한 문학성과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중문학의 현주소와 천박한 대안을 제시하는 접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밝힌다.

세계문학은 총괄적으로 BC 8세기부터 BC 4세기의 그리스 고전문학, 6세기와 16세기의 르네상스 문학, 계몽주의,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낭만주의, 19세기 초반 이후의 리얼리즘문학, 스타달과 발자크의 뒷세대에 의해 성취된 결과로서의 자연주의, 19세기의 리얼리즘을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사회주의 리얼리즘, 상징주의, 1890년대의 심미주의, 1910-1930년 의 아방가르드 운동과 미래주의, 1916년 다다이즘, 1924년 초현실주의와 1910-1920년 표현주의를 총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모더니즘, 1960년대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문학이라는 발전경로를 거쳐왔다. 즉 그리스 고전문학의 대서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문학까지의 변천은 신에서 인간으로, 거대서사에서 미시서사로, 집단에서 개체로, 세계의 단일한 해석에서 다양한 해석의 차원으로, 중심에서

주변부로 초점의 이행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루카치(lukacs)(〈소설의 이론〉)의 ‘창공에 뜬 별을 보고 가야하는 별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그리스 호머의 대서사시를 통과 하면서 상실된 총체적이고 집단적인 통일된 서사에 대한 그리움이나 巴赫金(Mikhail Bakhtin)(〈拉伯雷와 그 소설의 세계〉)의 집단적이고 단성적인 소설의 서사가 르네상스의 拉伯雷에 오면서 다성적이고 희화화되면서 발전되었다는 관점을 감안한다면 서양의 문학은 그리스시대와 중세 르네상스에서 한 번의 전환점을 갖는다. 그리고 또 한번의 분수령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서양의 로고스(logos) 중심에 대한 통렬한 회의적 지성에서 출발하여 반지성적 인식이 투사된 후기구조주의나 해체철학의 태동 즉 탈장르, 탈중심화, 탈주체, 비판하거나 풍자하려는 의도 없이 기존의 텍스트를 무작위적으로 모방하는 模仿(pastiche) 등의 양상으로 문학에 구현된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분수령은 기존의 경향에 대한 거부 내지 극복의 의미로 읽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의 한·중의 문학적 구현에서도 미시적 의미에서 분수령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서양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갖는 단절과 부정의 그것이 아니라 계승과 극복의 분수령임으로 생각되어 진다.

한중문학도 거시적인 관점으로 발생,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면 역시 세계문학과 유사한 발전경로를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을 당대로 협소화시키면 더욱 더 세계문학의 발전경로를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당대문학은 시대상황이라는 결합의 축에서 집단 내지 개인 감성이 선택의 축으로 등가의 원리로 문학성이 투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8, 90년대 한국문학

한국의 80년대는 6, 70년대도 독재 통치에 대한 억압이 민주화에 대한 욕구로 분출되면서 군사 독재 정권이 민간 정부로 교체된 시기이자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던 전환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문학도 당연히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찰, 역사적 과오에 대한 성찰과 반성(중국의 反思小说과 같은 성격임), 민중의 시각으로 투쟁의 역사를 고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히 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운동이 빚어낸 저항으로서의 문학이 자리매김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80년대 문학의 의미와 한계가 혁명이라는 표상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90년대 문학은 문화산업과 상품미학의 거센 도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고독한 처지에 놓여있다."<sup>1)</sup>고 할 수 있다.

### 1) 80년대 한국문학

한국의 80년대 문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光州抗爭"이라 할 수 있다. 광주 체험은 작가나 독자들에게 가장 큰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정치적 현실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작가들에게 역사의 단절에서 오는 좌절과 절망으로 인한 패배의식을 갖게 했다. 이 시대의 문학은 광주체험의 비극성과 독재정권의 폭력하에서 삶의 억압과 생존환경 및 정치투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80년대의 傷痕文学, 反思文学, 尋根文学 등 구체적인 경향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기법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황중연 외,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8. 20쪽.

첫째, 李文烈의 <金翅鳥>나 尹厚明의 <敦煌의 사랑>과 같은 소설은 역사적 모순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은유적 기법으로 우회적으로 사회현실을 묘사하였다.

둘째, 소통되지 않은 세계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제반 조건 즉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형식을 파괴하면서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李仁星의 <낮선 시간 속으로>, 崔秀哲의 <고래 뱃속에서>, 徐廷仁의 <달궁> 등이 있다. <낮선 시간 속으로>는 전통적인 소설 작법에 도전하는 실험적 문체를 통해 자살 충동을 극복하여 다시 삶으로 복귀하는 스물네 살 젊은이의 성장을 다룬 소설이다.

셋째, 卜鉅一의 <비명을 찾아서>와 같이 가상의 역사나 정치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은유적 기법으로 묘사한 작품 유형이 있다. 이 작품은 일본 추밀원 의장 伊藤博文이 1909년 10월 26일 哈爾濱에서 있었던 安重根 의사의 암살 기도에서 사망하지 않고 부상만을 입었다는 가정 아래에서 씌어진 이른바 '대체역사(代替歷史, alternative history)'라 할 수 있다. 이 대체역사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묘사하였다.

넷째, 80년대 광주체험을 고발하는 저항문학과 外傷(Trauma)에서 탈출하려는 진취적인 의도를 갖는 소설의 유형이 있다. 전자에는 林哲佑의 <봄날>, 尹正謨의 <밤길> 등이 있고, 후자에는 林哲佑의 <직선과 독가스>는 과 文淳太의 <일어서는 땅>, 金仁淑의 <79-80>, 金南一의 <청년일기> 등이 있다.

다섯째, 이 시기 詩는 80년 5월 광주항쟁을 시작으로 군사정권에 저항하면서 80년대 한국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민중들의 생명력을 설득력 있게 포착하였으며, 소설 분야에서도 노동계급의 삶과 사회구조 속에서 모순을 고발하는 노동문학 유형이 출현하였다. 金南一의 <과도>, 鄭道相의 <새벽기차>, 方賢錫의 <새벽출정>, 柳舜夏의 <생성>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남북 분단의 현실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분단문학'이 출현하였다. 대표작품으로는 趙廷來의 <태백산맥>, 林哲佑의 <아버지의 땅>, 李文烈 <영웅시대>, 金周榮 <천둥소리>, 尹正謨 <님>, 황석영 <무기의 그늘> 등이 있으며, <님>은 전세대의 左右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당시대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묘사하였고, <영웅시대>는 사회주의 이념의 선택의 고정과 이데올로기의 정면충돌을 묘사하였다. 특히 10권으로 출간된 <태백산맥>은 한반도가 해방과 분단을 동시에 맞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제주도에서 4.3항쟁이 터지고, 滬順사건이 일어나 진압된 1948년 10월부터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조인되어 분단이 고착화된 1953년 10월까지, 60명이 넘는 그 시대를 살다 간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삶의 기록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남기는 80년대 분단문학의 대표작 중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생존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을 한국사회의 모순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삶의 파괴적인 모습을 그린 유형이다. 梁貴子의 <元味洞 사람들>(87)과 朴榮漢의 <왕릉일가>(88) 등은 도시 변두리인들의 자기소외와 허위적인 중산층 의식을 묘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소설장르 이외 시장르에서는 70년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문학으로서의 모순된 사회구조와 차별을 고발하는 高銀과 金芝河, 80년 5월 광주항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달픈 생명력을 묘사한 朴勞解, 실험적 형식으로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한 黃芝雨, 朴南哲 등의 출현은 분단, 이념, 모순, 저항, 충돌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문학적 면모를 구성하였다.

## 2) 90년대 한국문학

90년대 한국사회는 80년대 저항으로서의 집단주의 극복, 92년의 민주화, 경제성장과 상업화, 인터넷 발달로 인한 소통화와 정보화, 상업화, 后現代主義 등 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양상을 띠었다. 또한 97년의 IMF 시대는 88년 세계올림픽의 환상이 깨어져 비관적인 정서가 팽배한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90년대에 접어들어 소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많은 상업주의적인 소설이 출현하면서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졌다. 팽창의 根底에는 80년대 집단주의, 이념과 사상과의 단절을 갈망하는 독자와 증가하는 출판사들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더 이상 거대담론에 종속되지 않고 80년대 역사의 체험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신세대의 취향, 중국의 新歷史小說과 新写实소설처럼 더 이상 거대한 주제, 거대한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자아와 자아의 욕망을 발현하려는 작가들의 자기 변신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한국문학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80년대의 거시적 글쓰기를 지양하고 개인화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글쓰기에 기반한 소설의 유형이 출현하였다. 이는 90년대 대부분의 소설에 적용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申京淑의 <풍금이 있던 자리>와 尹大寧의 <은어남시통신> 등은 80년대와는 달라진 사회, 문학적 상황과 그 속에 내재된 존재, 기억, 욕망들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90년대 급변하는 사회 현실속에서 모색한 작가들의 선택이었다.

둘째, 90년대 문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申京淑, 殷熙耕, 孔枝泳, 全慶隣 등의 여성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거론할 수 있으며, 여성작가들은 한 인격으로서의 개체성, 욕망의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와 <그녀의 세 번째 남자>, 전경린의 <환(幻)과 멸(滅)>, 공지영의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등은 성과 욕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여성의 개인화된 시각에서 고찰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여성작가들의 매진은 한국문단의 독특한 현상 중의 하나이며, 이는 80년대 거대담론과 동보적인 写作을 하던 남성작가들이 90년대라는 시대의 변화에 출로를 모색하고 있는 틈을 타서 미시담론에 기반한 개인화된 글쓰기 전력을 구사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신역사소설은 역사재제 선택의 개인화, 微觀化, 주변화를 시도한 반면 한국 문단에서는 과거의 역사사건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李恩成의 <소설 東醫寶鑑>, 李仁花의 <영원한 제국>, 金真明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이 있으며, <소설 동의보감>은 주인공 許浚의 시각에서 당시 시대를 재구성하고, <영원한 제국>은 朝鮮 中後期 군주였던 正祖의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음모를 묘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마치 亞里士多德(Aristoteles)의 <詩學> 중 喜劇篇의 유실을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한 翁貝托·艾柯(Umberto Eco)의 <玫瑰的名字>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넷째, 대중성에 기반한 상업주의의 등장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작가들의 생존 전략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80년대의 깊이에 대한 거부감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내내 정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한국문학이 달라진 정치 환경에 차별하게 적응하면서 문학 논리를 개발하는 대신,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급하게 대중성 있는 문화논리를 추종했으며, 권력 욕망을 문학적으로 포장했다는 점으로 수렴된다."<sup>2)</sup>

2) 金正蘭, 90년대 문학의 가능성, 동서문학(韩国:首尔), 1999. 여름호

일명 시의 시대라 할 수 있는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에 이르러 시는 사상과 이념의 변화에 따라 탈이념, 탈사상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는 서구 마르크시즘의 쇠퇴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양대 효과에 대한 영양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의 몰락과 시라는 장르에 집중되었던 모든 분야의 관심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영상매체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모든 인문주의적인 가치관의 몰락 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일방적인 우위에서 탈피하여 점차 낭만적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 및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상업화, 대중화, 문화자본화, 욕망화, 서정화되지 시작하였다.

비평분야에서는 중국과는 달리 지식인들의 이념지향적인 지적편향으로 인한 사회주의 예술이론들이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회의 대척점에서 이론적으로만 타진되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또한 후기구조주의와 解构主义의 문학비평이론의 동시대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였다. 특히 80년대의 사회주의 문학, 미학이론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의 后现代主义즘에 대한 수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비평이론을 정립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비평을 위한 비평 속에 매몰되어 버린 한계를 지니기도 하였다.

### 3. 8, 90년대 중국문학

중국 8,90년대 문학은 내부적으로는 문화대혁명과 천안문사건 등 역사적 곡절을 경험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학 담론을 수용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이데올로기 편향적이고 현실주의 창작관념이 주류 담론이 된 시기였고, 다양한 장르의 실험기인 신시기, 유희로서의 문학의 존재의미가 부각된 후신기를 거치면서 사회문화적 환경과 결합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후신기기는 사회와 문학의 개방이라는 면에서 신시기의 연장이라 할 수 있고, 인문정신의 상실, 가치관의 해체라는 측면에서는 본다면 새로운 시작이자 과거와의 단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 1) 80년대 중국문학

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정치환경의 변화와 외국의 철학과 문예사조 및 서적이 대량으로 번역 소개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형성된 伤痕文学, 反思文学 이외에 또하나의 문학 유형인 现代主义 문학은 기존 현실주의 창작 방법론에서 일탈하여 새롭게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유심주의(唯心主义)적이고 비이성주의(非理性主义)이라는 탈현실주의(脱现实主义)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80년대 초반 王蒙의 现代派 계열의 ‘意识流 기법 소설’(《春之声》, 《蝴蝶》), 80년대 중반 서양의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중국 现代派 소설(《你别无选择》, 《无主题变奏》, 《山上的小屋》), 80년대 후반 실험성이 뚜렷한 先锋小说(《冈底斯的诱惑》, 《信使的函》, 《一九三四年的逃亡》) 등은 탈현실주의 입장에서 허구와 상상을 운용하여 서술 기교를 개척한 실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현실주의와 탈현실주의의 변화 이외에 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文學史上 80년대 문학은 문화대혁명에 의해 단절된 ‘5·4’ 이래의 현실주의 문학 전통의 현대적 부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 이전 즉 신시기 문학과 85년 이후 후신시기 문학의 뚜렷한 특징은 신시기 문학이 이념지향적, 중심적, 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반해 후신시기 문학은 감정지향적, 주변부적, 개인적 성격으로 구분된다. 개혁개방과 함께 유입된 女性主义, 新历史主义 등

과 같은 서양비평이론과 后现代主义 이론가인 프레드리크·제임슨(Fredric Jameson)과 后殖民主义 이론가인 에德华·W.사이드(Edward W.Said) 등의 방문으로 많은 이론적 충격을 경험하고 창작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대내외적 영향하에서 후신시기의 문학에서는 1980년대 서양의 신역사주의와 영국의 역사유물론에 영향을 받은 新历史소설(苏童의 <妻亲成群>, 余华的《许三观卖血记》, 陈忠实的《白鹿原》 등)과 롤랑바르트(罗兰·巴特)의 零度写作의 전략적 지원을 받고 거대담론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미시담론을 주창하는 新事实소설(方方的 <风景>, 刘震云的 <一地鸡毛>, 池莉의《烦恼人生》 등) 등이 출현하였다. 이런 창작 경향들은 경직된 现实主义의 반영론을 해체시키면서 다원적인 글쓰기(写作)를 주창하였다.

## 2) 90년대 중국문학

80년대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90년대 중국 문학은 20세기를 장악해오던 문학 전통에서 이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문학 본연의 자율성에 기초한 미학적 추구하고 다양한 서사적 방식을 추구하였다. 다시 말해, 90년대 문학에는 80년대의 단선적인 틀을 탈피하면서 다원성과 개방성이 공존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 종속적인 문학에서 탈정치적인 문학으로, 소련 위주의 단일한 영향 창구에서 다양한 영향 창구로, 현실주의 서사원칙에서 현실주의 서사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권위적이고 중심적인 주제의 선택에서 다양한 탈중심적인 제재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아인식의 여성문학에서 개인적 자아인식의 문학으로, 욕망을 억압하는 문학에서 욕망을 재현하는 문학으로 변화해 왔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합하는 주된 골간은 현실주의 창작 방법론이 해체되고 탈현실주의 문학 방법론으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의 변화는 전(前)시대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문학의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전시대의 문학 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학담론을 창조한다. 문학이 변화된다고 해서 현실주의가 그 유효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新写实小说이나 新历史小说에서 차원을 달리하여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사실소설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현실주의 영향의 자장권 안에 있지만, 사회를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작가가 비판성을 견지하지 않고 작가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零度写作’로 현실을 묘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반현실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제재를 선택하는 기준이 탈정치적이라는 측면에서 주변화 되어 있다. 즉 현실주의 소설에서 강력한 작가의 권위는 신사실소설에서는 그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중국문학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매체의 출현- 대표적으로 인터넷 -으로 급속한 출판시장의 변화, 상업화의 물결, 상상품화 등의 부정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자율성과 문학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시도와 독자들의 수요가 결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문학이 경험했던 이념과 정치의 포로가 되었던 과거로부터 나아가는 문학성 회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당대문학도 시기적인 차별성은 존재하나 큰 틀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4. 한중문학의 동보성과 차별성

한국과 중국의 문학은 그 토대가 동양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호 이질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측면에서는 이질적인 요소 즉 리얼리즘 문학의 반영과 실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체제이질성 속에서도 현대사의 굴곡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독재주의가 형성, 변천, 해체되는 유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문학의 발전과정에서 본토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거칠게나마 아래와 같이 그 차별성을 고찰할 수 있다.

### 1) 역사소설과 대하소설

한국의 1980년대에 와서 소설에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것은 대하소설(大河小说)의 등장이다. 이것이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황석영(黃皙暎)의 역사소설 《장길산(張吉山)》과 조정래(趙廷來)의 《태백산맥(太白山脉)》, 朴景利의 <土地> 등을 들 수 있다. <태백산맥>(10권)은 1980년대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총 200쇄를 인쇄했으며,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격동의 시대를 그리고 左와 右의 이념 대립 속에서 노출되었던 한국의 현대사를 조망하였다. <토지>(21권)는 1969년부터 연재를 시작, 26년에 걸친, 4만 여장 분량의 작품으로 한국문학사에서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으며, 1897년부터 1945년까지라는 한국사회의 반세기에 걸친 기나긴 격동기를 묘사하여 한국의 현대사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1950, 60년대 역사성이 강한 杜鹏程의 《保卫延安》, 赵树理的 《叁里湾》, 曲波的 《林海雪原》, 吴强的 《红日》, 梁斌의 《红旗谱》, 柳青의 《创业史》 등과 신시기 陈忠实的 <白鹿原> 등의 저작들이 출현하였으나 한국과 같이 10권 분량의 큰 편폭으로 구성된 대장편소설이 출현하지 않았다.

대하소설의 편폭이 한중 양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시대적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고자 하는 문학적 욕구의 차이와 양국의 사회 정치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작가와 사회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体制反思와 体制否定

일명 저항문학은 문학의 문학성을 사수하기 위한 작가들의 선택이었다. 한국의 경우 70-80년대 군사정권의 통치 하에서 체제를 부정하는 저항문학이 문단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저항문학은 주로 70년대 형성되어 80년대 诗된 장르를 통해서 朴劳解(<노동의 새벽>), 백무산(<만국의 노동자여>), 高银(<万人谱>), 申庚林(<浓雾>, <남한강>), 文炳兰(<땅의 연가>), 金南柱(<조국은 하나다>) 등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저항문학은 체제부정이라기 보다는 체제에 대한 반성적 사유에 가까웠다. 주로 伤痕문학이나 反思문학을 거론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대혁명의 상처를 폭로하고 발발원인을 역사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찰하는 차원에서 창작되어졌으며 체제부정이라는 극단적인 차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체제 경직성의 강약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여성의 문학과 욕망의 문학

한국의 경우 6, 70년대의 吴贞姬(<중국인 거리>)와 朴婉緒(<배반의 여름>) 등은 산업사회 과도기에서 여성의 삶의 현주소를 고찰하였고, 80년대 姜石景(<숲 속의 방>), 梁贵子(<元味洞 사람들>) 등은 삶의 일상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였다. 90년대에 이르서는 여성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기반하여 개체 여성으로서의 욕망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예를 들면, 殷熙耕의 <아내의 상자>, 全庆璘의 <환(幻)과 멸(灭)>, 孔枝泳의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金仁淑의 <거울에 관한 이야기> 등은성과 욕망에 적극적인 고찰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모색하였다.

중국에서 十七年 文学 속의 여성소설은 신중국의 성립과 여성해방, 남녀평등과 함께 고양되었으나, 문학이 혁명의 틀 속에 귀속됨으로 인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사회의 전

체성은 여성주체를 지배했으며, 여성 주체는 집단 의식과 남성주체로부터 이중의 억압을 받았다. 그러나 新时期에 이르러 여성문학은 이상주의적 경향이 있으나, 여성 개인 주체는 여전히 사회 정치의 틀속에 종속되어 있었다. 后新时期(1985,6년 이후)에 들어서, 林白(《一个人的战争》)와 陈染(《私人生活》) 등은 주로 新时期 여성문학의 금욕적인 이상적 애정을 극복하고 가부장제하에서 조성된 여성의 초정치적인 성별비극을 묘사하였다. 아울러 현실의 문화배경에서 여성 자신의 가치를 탐색하였다. 90년대에 이르러 여성문학은 작가 개인의 체험으로 여성의 집단생존 체험에 대한 자각을 서술하였다. 많은 여성 작가들은 개인화된 담론방식을 찾았다.

한중 양국의 여성문학은 출현하는 환경은 각각 다르나 여성의 정체성과 욕망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치와 역사를 화두로 삼아 작품의 서사를 구성하던 남성의 巨視적 글쓰기가 시대적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틈을 타고 출현한 개인화된 글쓰기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외국문학의 수용과 변용

한중 양국은 70년대를 통과하고 문학이론이나 문학 작품에 관한 대외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외부자원을 흡수하여 자국의 문학을 더욱 더 풍부하게 하였다. 중국의 경우 现代主义, 存在主义, 魔幻现实主义, 后现代主义, 新历史主义 등의 문예사조는 詹姆斯·乔伊斯(James Joyce), 萨特(Jean Paul Sartre)와 加缪(Camus, Albert), 博尔赫斯(Borges, Jorge Luis)와 加西亚·马尔克斯(Gabriel Garcia Marquez), 弗洛伊德(Sigmund Freud), 弗雷德里克·詹姆斯(Fredric Jameson) 등의 유입으로 인해 다양한 경향의 문학이 출현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보다 시간적으로나 범위면에서 광범위한 유입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비평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后现代主义는 창작의 방법론으로의 유입보다는 창작 사상으로서의 유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新历史主义는 중국에서는 新历史小说 장르가 출현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문학 장르의 출현은 없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90년대 프랑스의 后结构主义가 유입되면서 문학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后结构主义 이론서의 출판과 "80년대 말에 이루어진 세계사적 지각변동으로 인해 80년대 지식인들을 결집시켰던 마르크시즘이 급속도로 영향력을 잃어가자 그 빈자리를 프랑스의 탈구조주의가 대신했기"<sup>3)</sup>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에서 추적해보는 문학의 발전경로는 서론에서 인용한 特里·伊格尔顿(Terry Eagleton)의 말처럼 문학의 문학성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초입에 양국의 문학이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의 정체성 규정이 사회변혁이라는 관점이 문학을 지배하고 있는 한 문학의 소외는 계속될 것이며, 문학의 효용성이 심미적 만족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사회역사적 상황과 마주 친다면 문학의 모습 역시 양국의 문학이 좌초하면서 통과한 긴 터널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당위적 문학도 문학의 당위성도 아닌 문학의 문학성은 곧 양국의 당대문학에서 고찰한 문학성의 억압의 역사에서 탈피해야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후 양국의 문학

3) 朴圣昌, 结构主义与韩国文学研究, 法国文化艺术研究(韩国: 首尔), 2003年第8期.



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방향성은 종결이나 완성으로서의 순차적인 발전이 아니라 집단적 저류를 암유하고 있는 서정적 개인과 개인을 역사적으로 연속시키면서 순환되고 성취되어지는 영원한 미완의 효용성 즉 영원히 포착되어져서는 안되는 우리 존재의 영역의 마지막 보루에 존재하게 해야 함을 우리는 한중 80-90년대 문학을 통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당대 한중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수많은 시각 중의 하나일 뿐이며 제한된 지면 때문에 도식화, 평면화, 단순화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대의 한중문학의 현주소를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문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은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陈思和, 《中国当代文学史》, 復旦大学出版社, 1999年.  
洪子诚, 《中国当代文学史》, 北京大学出版社, 1999年.  
陈晓明, 『共和国文学50年』(北京社会科学出版社, 1999).  
戴锦华, 「重写女性: 八、九十年代的性别写作与文化空间」, 『妇女研究論丛』, 1998年第2期.  
朴正元, 「小说의 慾望, 慾望의 敍事: 中国 当代小说의 敍事样式的 变迁」, 『中国学研究』(韩国: 首尔), 2002年(第24期).  
朴正元, 「中国当代文学과 个人化 写作—女性文学을 中心으로」, 中国现代文学(韩国: 首尔), 2002年(第23期).  
朴正元, 中國 當代小説의 世代交替, 中國學研究(韩国: 首尔), 2003年 (第24期)  
朴正元, 中国当代小说과 外來影向, 中國現代文學(韩国: 首尔), 2003年 (第25期)  
王晓明, 「九十年代的女性——个人写作」, 『当代作家评论』, 2001年第1期.  
丁帆, 「新时期小说叁次“性高潮”后的反思」, 『文艺报』, 1997年2月1日.  
陈虹, 「中国当代文学: 女性主义·女性写作·女性本文」, 『文艺评论』, 1995年第4期.  
陈思和, 「90年代 中国文学에 对하여」, 『文学思想』, 1999년봄호.  
陈晓明, 「晚生代与90年代文学流向」, 『山花』, 1995年第1期.  
朴圣昌, 结构主义与韩国文学研究, 法国文化艺术研究(韩国: 首尔), 2003年第8期.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1945-2000, 민음사(韩国: 首尔), 2002.  
김윤식, 김우중 등저,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韩国: 首尔), 2003.  
황종연 외,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韩国: 首尔), 1998.  
김정란, 90년대 문학의 가능성, 동서문학(韩国: 首尔), 1999. 여름호